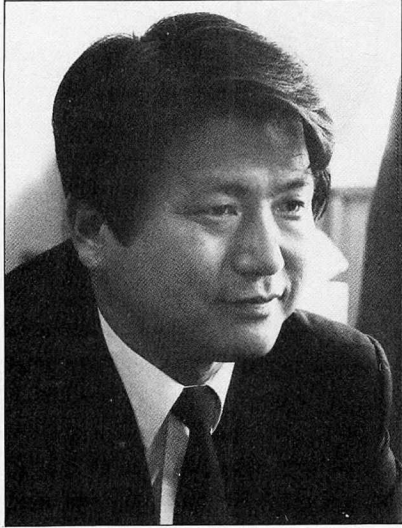


“外書 무단복제에 美 ‘보복’ 압력”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尹熙昌씨



**앞으로 한미협상의 실무적 주역이 될
윤희창 저작권과장은 국내
업계의 보호를 위해 미국측의 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저작권제도의 확립이
우리 출판문화의 건전한
육성에 발전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한다.**

새 저작권법 발효 및 세계저작권협약 가입 이후 국내 출판업계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통상법 301조를 앞세운 미국측의 압력이 차츰 짊어지고 있다. 당장은 외국도서의複製(리프린트) 문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는 2월초로 예정된 韓美간 저작권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은 리프린트 문제 외에도 저작권 개념의 확대를 들고 나오리라는 전망이다.

문공부는 지난번 기구개편을 통해 ‘저작권課’를 신설, 새롭게 전개되는 저작권문제의 諸樣相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한미협상의 주역이기도 한 尹熙昌저작권과장을 만나봤다.

—먼저, 저작권과의 기능어랄까 관장업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작권의 심의조정이라든가 저작권 에이전트의 법적 허가 등 저작권관계의 모든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의 일차적인 해석권을 갖고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라면 출판관계 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한데, 주무당국의 입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출판은 회전기간이 최소 1년은 되지만, 가령 아직 한미간에 협의는 안했지만 최신 판송 같은 것은 회전속도가 빨라 문제입니다. 비디오 복제문제도 시급한 과제이죠. 미국의 僑民사회에서도 KBS의 「가요무대」나 MBC의 「전원일기」 등을 비디오로 무단 복제해서 대여하는 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판쪽은 당장은 리프린트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번역문제라든가 신문·잡지의 轉載문제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문공부에서는 지난 8월 미국도서를 무단 복제·판매한 5개 출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점의 무단복제물 판매를 봉쇄하는 등 리프린트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재고도서가 200만부나 된다니 큰 문

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그 문제는 이미 86년에 한미간에 합의를 본 것인데, 일단 합의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지켜져야 합니다. 자기네들 책이 무단복제되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느끼는 미국측 입장도 이해해야지요.”

국내 리프린트업계는 미국측 에이전트인 PAM(팬 아시아 미디어)을 협상창구로 AAP(미국출판협회)와 교섭하고 있다지만, AAP는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PAM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서 USTR(美通상대표부)에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요청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고도서는 몽땅 우리 정부가 압수해서 原출판사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따라서 미국출판사들과의 협상창구도 PAM이 아닌 제3자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열쇠는 과학기술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맥그로힐, 와일리, 사이먼 슈스터 등 메이저 출판사들이 쥐고 있고, 군소 출판사들은 실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들 메이저 출판사들과 협상해서 적당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밖에 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3월 신학기가 피크가 될 것 같은데,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당할 바에야 미리 선수를 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고도서 200만부를 原書가격으로 처서 보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월초로 예정된 한미 저작권협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카드는 무엇인지?

“안건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파이프라인 특허문제인데, 그동안 국내에서 보

호받지 못했던 물질특허 문제입니다. 둘째는 출판물을 비롯한 음반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문제, 셋째는 저작권의 개념을 위성방송·유선방송·컴퓨터 칩 등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측 협상카드는 없습니다. 특히 리프린트문제는 우리 업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尹과장은 오는 2월초 USTR과의 저작권협상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뒤 미국의 메이저 출판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그들은 原書를 직수입하라는 요구입니다.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한다 해도 2~3년내에는 복제권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출판계에 대한 뿌리깊은 不信 때문인데, 이것이 다 先進化의 진통이라고 봐야겠지요. 따라서 앞으로 국내 外書教材시장에 공백이 올 것이 필연적인데, 번역권을 따거나 국내 교수들이 대학교재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과당 번역경쟁으로 로열티 인상 등 불평등계약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尹과장의 말이다.

올해 42세의 尹과장은 경남 南海 출신으로 경남고교와 서울대法大를 거쳐 행정고시에 합격, 문공부에 들어온 이후 해외공보관 제작과장, 법무관 등을 지냈다. 지난 86년에는 한미간 지적소유권협상에 한국대표로 참여했고, 작년에는 3개월간 미국에 체재하면서 미국 저작권제도를 연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저작권문제에 가장 정통한 그의 협상수완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민음사

金達鎮譯 唐詩全書 計9,000원

柳宗鎬·사회역사적 想像力 計5,000원

막릴런 申午鉉譯 칼마르크스의思想 計3,800원

갈포퍼 李漢龜外 열린사회와 그敵들 I 計3,500원
II 計3,500원

베야민 潘星完譯 발터벤야민의文藝理論 計4,500원

라카토스外 초소옥外 현대과학철학논쟁 計8,000원

필리스틴 羅慶洙外 영국의 산업혁명 計4,700원

R. 피어슨 金潤민譯 기후와 진화 計6,000원

룩관텐 宋基中譯 遊牧民民族帝國史 計5,200원

미셀루코 李光來譯 말과 사물 計6,000원

와인버그 康英啓譯 중세철학사 計4,700원

모리스를라인 朴世熙譯 수학의 확실성 計7,000원

車仁錫·사회인식론 計6,000원

이민호·歷史主義 計4,500원

고철환·수리분류학 計4,800원

문선규·中國古代音韻學 計5,800원

김희성·印度哲學史 計4,500원

김한주·中國古代文學史 計3,800원

윤내현·商周史 計5,700원

김현·文學社會學 計3,200원

강대기·현대도시론 計4,000원

김태준·洪大容 評傳 計5,000원

최창조·韓國의 風水思想 計5,000원

정동오·韓國의 庭園 計5,200원

김대기·현대도시론 計4,000원

김현·文學社會學 計3,200원

윤내현·商周史 計5,700원

김한주·中國古代文學史 計3,800원

김희성·印度哲學史 計4,500원

문선규·中國古代音韻學 計5,800원

고철환·수리분류학 計4,800원

이민호·歷史主義 計4,500원

車仁錫·사회인식론 計6,000원

모리스를라인 朴世熙譯 수학의 확실성 計7,000원

와인버그 康英啓譯 중세철학사 計4,700원

미셀루코 李光來譯 말과 사물 計6,000원

룩관텐 宋基中譯 遊牧民民族帝國史 計5,200원

R. 피어슨 金潤민譯 기후와 진화 計6,000원

필리스틴 羅慶洙外 영국의 산업혁명 計4,700원

라카토스外 초소옥外 현대과학철학논쟁 計8,000원

베야민 潘星完譯 발터벤야민의文藝理論 計4,500원

아우얼바하 金禹昌 柳宗鎬譯 미메시스 I 計4,000원
II 計3,500원

갈포퍼 李漢龜外 열린사회와 그敵들 I 計3,500원
II 計3,500원

막릴런 申午鉉譯 칼마르크스의思想 計3,800원

柳宗鎬·사회역사적 想像力 計5,000원

金達鎮譯 唐詩全書 計9,000원

廉想涉全集

① 萬歲前·해바라기·너희들은 무엇이냐 計7,000원

② 사랑과 죄 計7,000원

③ 二心 計6,000원

④ 三代 計7,000원

⑤ 白鳩 計7,000원

⑥ 牡丹笑 計6,000원

⑦ 驟雨·花冠 計7,000원

⑧ 廉想涉 世代代를물려서 計7,000원

⑨ 초기단편 計6,000원

⑩ 후기단편 計6,000원

⑪ 후기단편 計6,000원

⑫ 評論·隨筆集 計5,000원

⑬ 評論·隨筆集 計5,000원

⑭ 廉想涉文學研究 計7,000원

오늘의 인문사회과학을 주도하는
찬연한 금자탑